

사회

시민들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주 “경영난 가중” 호소

20일부터 6부제 시행 앞둔 광주 법인택시 표정

광주지역 법인택시가 오는 20일부터 기존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된다. 지난 1984년 8부제가 시행된지 28년만인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법인택시는 76개 회사에 3471대가 운행중으로, 기존 8부제 때는 하루 3037대가, 6부제가 시행되면 하루 2893대가 각각 운행된다.

5일 근무 뒤 1일 휴무하는 6부제가 시행되면 하루 144대의 택시가 줄어들어 택시 운전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측의 경영난 문제 해결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운수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 6부제추진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일반택시 6부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법인택시 6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개월 동안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광주시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면, 5000여명에 이르는 운수종사자들의 ‘과로 운전’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운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광수(69)씨도 “지난 25년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택시를 몰면서 그동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고도 힘들었다”며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제 이루어진 만큼 고객들도 더 좋은 교통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운수사업자들은 6부제 도입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운수회사 사장은 “광주시는 6부제가 시행되면 전체 택시 회사의 손실이 22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5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 김영찬(55)씨는 “일부 기사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 때문에 택시를 타면 짜증부터 났다”며 “처우가 개선된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택시 기사의 과로 운전 예방과 운송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택시 6부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14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택시 6부제 발대식’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의장이 택시에 6부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인문고까지 혁신학교 확대
장항국 ‘교육실험’ 통할까

광주 성덕고 첫 지정

광주시교육청이 인문계 고교까지 ‘빛고을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하고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실험’으로 불리는 혁신학교가 성적지향·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입시를 앞둔 고교까지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4일 성덕고등학교에 따르면 광주 시 광산구에 있는 성덕고등학교가 올 3월 개교와 함께 인문계 고교 가운데 처음으로 혁신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초·중 8개교, 대안고교인 동명고 등 9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됐지만, 인문계 고교가 포함된 것은 성덕고가 처음이다. 이 학교는 정규 교과목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일부 국·영·수 등 교과목의 수업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토론, 모둠식 수업(공동 과제 수행) 등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성덕고의 한 신입생은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의외로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 열려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최근 성덕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학부모 김모(50)씨는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교까지 혁신학교의 자유로운 교육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고교와 인문계고 2곳을 혁신학교와 같은 ‘무지개 학교’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고교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고교와 인문계고 2곳을 혁신학교와 같은 ‘무지개 학교’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고교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weather outlook.

‘승부조작’ 11명 구속·16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두 31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배구선수 최모(28)씨 등 4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했고, 군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가운데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현직 KEPCO 선수 박준범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

명 소속 선수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2009~2010 시즌과 2010~2011 시즌 2차례에 걸쳐 모두 14명의 선수가 가입해 17경기를 조작했고, 여자배구는 2010~2011 시즌에 1차례 경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들은 경기조작에 가담할 때마다 브로커들에게 150만~5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프로야구에서 구속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성현은 모두 3차례의 경기를 조작해 7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같은 팀 박현준은 2차례에 걸쳐 경기조작에 가담해 500만원을 받았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외국인 2명 첫 영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외국인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청은 특수순경 혐의로 영국 출신 앤지 켈터(61·Angie Zelter)씨와 프랑스인 활동가 벤자민 모네(33·Beniamin Monnet)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앤지 켈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동방과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내로 들어간 혐의다. 켈터씨는 영국 출신 평화·환경

활동가이며 2012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모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해안으로 카약을 타고 진입한 뒤 해군이 쳐놓은 철조망을 넘어 기지 내 굴착기에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네씨와 함께 기지 내 굴착기에 올라간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김모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나머지 13명은 석방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JHR hearing aids,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for Dr. Lee's treatment of allergies and asthma, titled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Advertisement for An Dong Gankodung-eo, featuring a 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text: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